

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4차 국내논의 결과

1. 개요

- (목적) UN 푸드 정상회의(9월) 前 먹거리전략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- (일시/장소) '21.5.7.(금) 14:00~16:00 /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
- (참석) KREI, 농식품부, 교육부, 식약처, WFP, 생산자·소비자단체, 전문가 등
 - * KREI(국승용 부장, 농식품부(식량정책과장 외 3명), 교육부·식약처 사무관, 한농연(서용석), 한국소비자연맹(이향기 부회장),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(탁명구 사무총장), 한국소비자원(배순영 정책연구실장), WFP(오준석 차장),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최슬기 부연구위원), 공주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(윤혜려 센터장), 충남대 김성훈 교수, 광주교대 방기혁 교수 등 15여 명

2. 주요 논의 사항

◇ '먹거리 접근성 보장'을 주제로 ① 먹거리 통합지원, ② 국민 건강·영양 개선, ③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토론

- (통합지원) 농식품바우처사업 등 확대 및 본사업화* 필요(김성훈·한농연), 해외 원조 확대 및 영양식품지원(김성훈·WFP) 제안
 - * 안정적 농산물 공급 위해 바우처/과일간식/임산부꾸러미 사업 등 지속 필요(한농연)
- 중앙정부와 지자체·NGO 간 협업(김성훈), 먹거리 전문 현장인력 양성(식생활 네트워크·방기혁), 먹거리 공급과 교육 간 연계로 효과 제고(보사연 등) 필요
- (영양개선) 농업·농촌 이해 교육(방기혁·소비자연맹), 영양 불균형* 개선(보사연), IT기술** 활용(WFP·소비자연맹), 지역여건 고려 및 부처간 협조(급식센터) 등 필요
 - * 우리나라의 경우, '영양섭취 부족'보다 '영양 불균형'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
 - ** 현재, 식생활국민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고도화 작업 추진중(식약처)
- (안전관리) 소통·참여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·심리적 안전관리(김성훈, 소비자원), 미생물 위해요소 관리*(소비자연맹, 교육부) 등 강조
 - * 향후 농특위 국가식량계획 이행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(식약처)